산별노조 기반 흔들…위기 맞은 민주노총

대법 "산하 지회, 기업별 노조 전환 가능" 판결
광주·전남 중소규모 노조들 움직임 촉각
민주노총 "노조 무력화 우려"…25일 대책 논의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 산하의 지회·지부도 독립성이 있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산별노조 체제를 기반으로 조직을 키워 온 민주노총은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산별노조에 가입해 있는 광주·전남 소규모 노조들의 기업별 노조 전환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산별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킬 창구를 열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민주노총 흔들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9일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장과 조합원 등 4명이 발레오 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관들은 8(파기 환송) 대 5(상고 기각)로 의견이 나뉘었다.

대법원은 지부·지회가 산별노조 하부조직이라는 원칙은 인정했지만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위체로 활동해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용자와 직접 단체 교섭·협약을 맺으며 기업노조 수준의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기존 판례보다 조직형태 변경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1995년 창립된 민주노총의 근간은 산별노조 체제다. 민주노총 산하에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모두 16개 산별노조가 있으며,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69만여명의 80%에 달하는 55만여명이 산별노조에 가입해 있다.

이번 판결 이전에도 민주노총 산별노조 체제의 기반이 흔들리는 조짐을 보였다.

최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양시지부가 전국통합공무원노조(통공노)에 가입하려고 하자 전공노가 '조직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지난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를 기각했다. 전공노의 산하기구에 불과해 독립적으로 조직변경 결의를 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전공노가 전공노 고흥군지부를 상대로 신청한 조직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과 함께 정부의 민주노총 흔들기가 계속되면서 광주·전남 중·소규모 단위노조의 산별노조 탈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산하에는 모두 1000여개 사업장에 150여개 단위노조가 10개 산별노조에 가입돼 있으며, 조합원은 3만400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기아차 노조와 금호타이어 노조원 1만1000여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 단위노조다. 대기업 노조보다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소규모 단위노조는 정부나 사측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기업노조로의 전환, 즉 '산별노조 탈퇴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는 25일 예정된 정기대의원 대회를 통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광주본부 관계자는 "최근 노동개혁 양대지침과 함께 이번 사안이 터지면서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라며 "산별노조 탈퇴에 따른 사측과 정부의 노조 개입이 우려되기 때문에 추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난폭한 떠돌이 개 때문에… 광주교대 '때 아닌 공포'

가방·신발 등 물어뜯기 빈번
학생들 조 짜서 이동 등 불안
소방서 8차례 출동 포획 못해

광주교대 학생회에서 최근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유는 학생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떠돌이 개' 때문이었다.

지난해 말부터 학교에 나타나기 시작한 떠돌이 개가 학생들의 가방과 신발들을 물어뜯는 사고가 잇따르자 학생회와 학교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한 것이다. 학생들은 행색이 초라하고 성격까지 나쁜 이 개에 일명 '거지왕'〈사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거지왕'이 대학교 교정을 배회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수컷인 이 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보던 또 다른 암컷 떠돌이 개 '가을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대학교 기숙사 주변을 거점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몰하기 시작했다.

학생들도 처음에는 '가을이'의 남편이 나타났다며 관심을 보였다. 문제는 온순한 성격을 가진 '가을이'와 달리 '거지왕'이 다소 난폭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

기숙사를 오가는 학생들의 가방과 신발들을 물어뜯고 도망치는 사례가 잇따랐고,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개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밤 늦은 시각에 조를 짜서 이동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더 난폭해지고 있다는 게 광주교대 학생들의 설명이다.

학생들은 최근까지 광주북부소방서에 모두 8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유독 이 개 앞에서는 소방대원들도 속수무책이었다. 개가 이상하게 소방대원만 나타나면 자취를 감추거나, 눈에 보이더라도 워낙 활동성이 좋아 잡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는 마취총을 맞고도 유유히 줄행랑을 치면서 학생들과 소방대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학교 측은 학생회의 요구에 따라 유기견 포획망 제작을 의뢰한 상태다.

광주교대 한수영 학생회장은 "주로 기숙사 건물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포획망이 만들어지더라도 누가 직접 나서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광주북부소방서 관계자는 "거지왕은 잡종 견으로 보이지만 워낙 빠르고, 움직임이 좋아 올무와 포획망으로는 잡기가 힘들고, 마취총도 관련법에 따라 독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며 "학생들과 의논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포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공무원노조 전공노 가입 추진 정부와 갈등 예고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이른 바 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을 추진해 정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가 '법외노조 가입을 위한 투표 등이 지방공무원법을 거스르는 위법행위'라며 선을 긋고 나섰기 때문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내 전공노 가입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행위는 철저한 사전 차단과 사후 징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자부는 "비합법 단체인 전공노 가입을 위한 대의원대회, 투표 등 일체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해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인 위법행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광주시 공무원 노조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조직형태변경 투표를 위한 총회 상정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는 앞서 2014년 1월에도 전공노 가입을 추진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정부 등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노조는 당시 투표를 강행했으며 정족수(과반수 투표) 미달로 무산됐다. 당시 투표율은 33%였다.

시 공무원 노조는 '시 공무원 노조와 시청 공무원 노조' 등 복수노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각 1320명과 350명이다. 6급 이하 전체 가입 대상 공무원 1721명 중 97%가 가입해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휴일은 독서와 함께 21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문화관 내 영풍문고를 찾은 시민들이 마음에 드는 책을 읽으며 휴일 여가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가정서 교화 필요"…여동생 성폭행 지적장애인 집유

광주지법 형사11부 선고

법원이 교도소가 아닌 가정에서의 교화가 필요하다며 여동생을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오빠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용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지적장애 1급)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한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어머니를 협박하고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A씨는 집 밖에서 폭력성향을 내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여동생은 집이 아닌 쉼터에서 생활 중이고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도소에서의 교화가 지적장애인에게 효율적인 교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폭력 범죄 예방 측면에서 집행유예·보호관찰 등 개별적이고 특별한 예방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로 지능, 충동조절, 사회적응, 현실판단 능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인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인정했다.

A씨는 2010년 집에서 당시 12세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어머니(42)를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장애학생 폭행 교사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A(여·4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초순께 지적·뇌병변 장애 1급인 B(8)군이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있자, 양 손바닥으로 B군의 양 볼을 3~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14일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 2급 C(6)군의 양 볼을 때리는 등 총 6회에 걸쳐 B군과 C군을 학대·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체벌이라고 주장하지만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정욱기자 jwpark@

'우울증 시름' 초등 여교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교사는 수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이 같은 사실이 학교 등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오후 4시45분께 광주시 북구 한 주택 2층에서 이 집에 사는 A(여·25)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이모(64)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전남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봄 방학을 맞아 집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딸이 5년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고, 지난해 겨울부터 증세가 심해져 며칠 전부터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지병이 악화됐다"며 "3년째 교사로 근무하면서 우울증 치료 병력이 학교 측에 알려질 것을 걱정해 사실상 병원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아버지도 7년 전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국회의원 주민증 담긴 등기우편물 가져가 불 태운 70대

쌍나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계단에서 이 의원의 주민등록증 등이 담긴 등기우편물을 가져간 70대 노인이 경찰에 긴급체포.

○…21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김모(75)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39분께 순천시 조례동 이 의원 사무실 건물 1층 계단에 있던 등기우편물을 가져간 혐의.

○…김씨는 경찰에서 "이 의원을 좋아해서 그의 사무실에 들렀는데 아무도 없기에 술김에 계단에 있던 봉투를 들고 나왔고 집 앞에서 다른 쓰레기와 함께 불에 태워버렸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김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한데다 이 의원 측에서 '서울 사무실에서 보낸 것으로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혀 김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석방조치.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5타경3232	1	광양시 폭포사랑길96, 11동 2층 201호 [금호동,잠미연립주택] 75.25㎡	아파트	111,000,000 111,000,000	2015타경8077[중복]
2015타경8459	1	광양시 중마로230, 103동 13층 1306호 [중동,동광양우동파크맨션] 59.97㎡	아파트	69,000,000 69,000,000	
2015타경10360	1	광양시 광장로112-20, 104동 1층 101호 [중동,성호아파트] 49.97㎡	아파트	45,000,000 45,000,000	
2015타경11141	1	보성군 벌교읍 홍양로116-20, 5층 503호 82.95㎡	아파트	50,000,000 50,000,000	
2015타경12045	1	광양시 중마로210, 106동 15층 1501호 [중동,남양파크] 84.99㎡	아파트	101,000,000 101,000,000	
2015타경51019	3	고흥군 대서면 만남리 산90-5 13982㎡[서재열지분2분의1전부]	아파트	7,690,100 7,690,1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5타경10063	1	고흥군 동강면 대강리 749-3 364㎡	대	15,529,500 15,529,500	일괄매각,컨테이너주택3동매각제외
		고흥군 동강면 원유둔1길 33-8 40.50㎡ 제시외 번소 1.9㎡[제시외건물포함]	단독주택		
2015타경11264	1	구례군 산동면 신학리 739-1 747㎡ 제시외 창고 등 32.9㎡	대	34,064,890 34,064,89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구례군 산동면 오향길 28-3 59.83㎡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5타경10261	1	보성군 겸백면 석호리 698-2 3188㎡[박형종지분2분의1]	임야	3,985,000 3,985,000	
	2	동소 698-3 2511㎡[박형종지분2분의1]	답	10,420,650 10,420,65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보성군 겸백면 문림리 산16 3174㎡[손원재지분2분의1전부,분묘2기소재]	임야	1,587,000 1,587,0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5타경10421	1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42 13488㎡[이승세지분전부]	임야	12,813,600 12,813,6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5타경10483	1	보성군 벌교읍 연산리 17-6 1459㎡	전	79,290,900 79,290,9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17-8 1653㎡	전		
		동소 17-9 2149㎡	전		
		동소 17-10 1440㎡	전		
		동소 17-11 13630㎡	전		
2015타경10544	1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642-16 52㎡	전	20,240,000 20,240,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제외
		동소 643-4 178㎡	답		
2015타경10667	1	고흥군 동일면 백양리 1318 337㎡	대	5,729,000 5,729,000	제시외건물제외
	3	동소 1241-4 6㎡	전	45,600 45,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5타경10728	1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1863-13 202㎡	대	11,110,000 11,110,000	제시외건물제외
2015타경10902	1	광양시광양읍덕례리205-23 1477㎡[정광민지분3258분의550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24,185,980 24,185,98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5타경11448	1	고흥군 대서면 만남리 2066-5 3979.9㎡	답	36,217,090 36,217,09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5타경11622	1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산35-1 24790㎡[양재학지분2분의1전부,분묘소재]	임야	247,900,000 247,900,0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5타경11868	1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661 298.9㎡	대	38,259,200 38,259,200	
2015타경50818	1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739-2 1304㎡[박종석지분4분의1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답	29,992,000 29,992,000	제시외건물및수목제외,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5타경51019	1	고흥군 대서면 송강리 산117-3 9930㎡	임야	20,853,000 20,853,000	타인소유의건물및창고소재
	2	동소 산38 5950㎡	임야	5,950,000 5,950,000	
[기타]					
2015타경10667	2	고흥군 동일면 백양리 1241-3 124㎡	도로	731,600 731,6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16. 3. 7.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6. 3. 14.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종료와 동시로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부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여,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반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해서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명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에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분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은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모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해져서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김동진